

## 新儒學의 革命運動

慶 北 大  
權 延 雄

### 1

高麗 - 朝鮮 王朝交替의 歷史的 意義에 關하여 史家들의 見解는 대체로 두가지로 區分된다. 하나는 王朝交替를 단순한 政權交替로 보는 견해고, 다른 하나는 이를 韓國史에 있어서 중요한 轉換點으로 보는 견해다. 이러한 差異는 史家들의 觀點에 따른 것으로 兩者가 반드시 矛盾된 것은 아니다. 즉, 社會經濟史的 立場에서 보면 1392 년의 王朝交替가 社會나 經濟의 構造를 根本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므로 그 歷史的 意義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政治史나 文化史의 立場에서 보면, 高麗時代와 朝鮮時代는 顯著한 差異가 있으므로, 王朝交替는 두 時代를 가르는 중요한 分岐點인 것이다.

筆者의 立場은 1392 년을 韓國史의 重要的 轉換點으로 보고, 특히 이를 政治的·文化的 革命運動의 里程標로 보는 立場이다. 政治史的으로 보면, 王朝交替는 단지 易姓革命이라는 政權交替에 不過한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하여 舊時代와는 다른 새로운 政治秩序가 形成되었다. 우선 統治體制에서 보더라도 朝鮮王朝는 刮目할 만한 發展을 이루었다. 즉 高麗時代의 中央政府가 多元的인 體制로 同一한 行政機能이 여러 政府機關에 分散되어 合坐制로 運營했 던데 比해, 朝鮮時代에는 行政機能이 一元化되고 政府機構는 보다 効

果的인 피라미드식 體制로 改編되었다. 또 地方統治에 있어서도 高麗時代에는 屬郡, 屬縣, 鄉, 所, 部曲등 中央에서 官吏가 파견되지 않는 地域이 殆半이었던데 비하여, 朝鮮時代에는 이러한 地域이 모두 郡縣으로 改編되어 中央政府의 直接統治下에 編入되었다. 이러한 統治體制의 變化와 아울러 政治風土도 劃期的으로 바뀌었으니, 儒敎的인 理想政治를 實現하려는 努力이 活潑하게 繼續되었던 점은 특히 새로운 樣相이라 하겠다. 이 點에 對해서는 뒤에 다시 言及한다.

文化史的으로 보면, 高麗-朝鮮 王朝交替의 意義는 더욱 確然해진다. 그것은 易性革命을 계기로 韓國文化史에 있어서 佛敎時代가 끝나고 儒敎時代가 始作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4世紀경에 佛敎가 우리 나라에 전래된 이래 14世紀의 高麗末에 이르기까지 佛敎는 韓國人의 精神的 지주로서 韓國人의 生活全般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皇龍寺의 九層塔이나 海印寺의 八萬大藏經은 佛敎가 政治와 얼마나 密接한 關係가 있었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朝鮮時代가 始作되자마자 佛敎의 影響力은 급속히 減少하고 새 王朝의 國是인 儒敎가 韓國人의 精神的 支柱로 韓國人의 生活全般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結婚·葬喪·政治같은 社會的 行動은 물론, 宇宙觀 死生觀같은 思考方式에도 決定的인 變化를 가져왔다. 文化史上 이와같이 急速하고도 全面的인 變化는 類例가 드문 것으로서 우리가 이를 文化革命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도 誇張이 아니다. 要컨대 易性革命은 文化革命의 始作을 뜻하였다.

王朝交替가 政治的·文化的 變化를 가져온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王朝交替의 主役인 新儒學者들이 王朝交替를 前後하여 이러한 政治的·文化的 變化를 爲해 組織的이고도 持續的인 運動을 벌인 結果였다. 여기서 新儒學者들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新進士大夫들이다. 이들은 高麗末에 抬頭한 새로운 士의 政治 엘리트로서 이러한 變化를 追求할 이유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의 社會的 背景은 地方의 中心地主로서, 이들은 自身の 學問的 實力과 行政能力을 토대로 官界에 進出하였으며 思想的으로 新儒學의 열렬한 信奉者였다. 이러한 點에서 新儒學者들은 大土地所有者며 佛敎擁護者인 中央의 門閥貴族과는 根本的인 差異가 있었다. 따라서 新儒學者들은 舊體制를 改編하려는 強烈한 意志가 있었다.

2

高麗末期에는 舊體制의 支柱가 크게 흔들리어 高麗王朝는 심각한 危機에 直面하였다. 첫째, 지난 百年동안 高麗王朝의 政治的 支柱였던 元나라가 新興王朝인 明나라에 밀려 北쪽 蒙古方面으로 後退하고 있었는데, 元의 衰亡은 結果的으로 그 駙馬國인 高麗王室의 地位를 弱화시켰다. 둘째, 高麗王朝의 經濟的 支柱인 土地制度는 高麗中葉부터 이미 무너지기 始作했는데, 末期에 오면 權門勢家の 農莊이 擴大되어 國家의 財政이 破綻에 이르게 되었다. 셋째, 高麗時代의 精神的 支柱였던 佛敎는 그동안 既存體制와 密着하여 큰 影

響力을 발휘해 왔는데, 高麗末에 이르러서는 매우 沈滯하여 既往의 活力과 指導力을 喪失하고 오히려 많은 社會的·經濟的 弊端만 일으켰다. 이와같이 旧體制의 三大 支柱가 動搖하던 時期에 事態를 더욱 惡化시킨 것은 外侵이었다. 紅巾賊의 侵寇가 高麗의 殆半을 荒廢化시키더니, 倭寇의 侵入이 갑자기 甚해져서 海岸地方은 물론 內陸地方에서까지 掠奪을 恣行하여 莫大한 人的·物的 損失을 가져왔다. 특히 이를 막기 위한 軍事費의 急增은 가뜩이나 어려운 財政을 더욱 惡化시켰다.

이러한 危機를 당하여 彌縫策으로는 도저히 難局을 打開할 수 없었고 既存體制의 改編이 不可避하였다. 既存體制의 改編은 곧 그 세 支柱를 바꾸는 일이었다. 즉 事大에 있어서는 親元을 親明으로 바꾸고, 土地制度를 改革하고, 佛教寺院에 대한 大手術을 實施하는 것이었다. 이 既存體制의 改編問題에 관하여, 高麗末의 支配層의 立場은 대체로 세 가지 政治路線으로 區分할 수 있다. 첫째는 保守派로, 이들은 旧體制下의 特權層으로서 旧體制를 擁護하였으니, 親元政策을 固守하고 土地改革에 反對하며 佛教의 弊端도 問題삼지 않았다. 둘째는 急進派니, 이들은 旧體制를 根本的으로 바꾸려는 立場에서 親明政策을 主張하고 全面的인 土地改革을 推進했으며 徹底的한 崇儒抑佛政策을 指向하였다. 셋째는 進歩派였으니 이들의 立場은 保守派와 急進派 사이의 中間路線이었다. 事大政策에 있어서는 兩者折一보다는 伸縮性있는 兩面外交를 追求하였고, 經濟政策에 있어서는 部分的인 土地改革을 통해 時急한 財政難을 解決하고자 했으

며, 佛政에 對해서도 매우 穩健한 立場이었다. 新儒學者들이 急進派 乃至 進歩派였던 것은 自明한 일이다.

路線의 對立은 곧 政權鬭爭의 推移에 따라 그 樣相이 바뀌었다. 恭愍王의 進歩的인 改革政治가 中途에 끝난 후 한 동안은 保守派가 得勢하여 親明政策은 親元으로 逆轉되고 土地改革도 挫折되었다. 그러나, 1388년의 威化島回軍을 契機로 事態는 急變하였으니, 이때는 進歩派와 急進派가 提携하여 保守派를 武力으로 打倒함으로써 親明政策을 摺하였다. 또 三年後에는 北元마저 滅亡하여 事大政策은 이로써 一段落되었다. 保守派를 除去한 다음에는 進歩派와 急進派의 路線對立이 尖銳化하였는데, 그 對立은 주로 土地改革에 對한 利害關係의 相反에 起因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進歩派가 優勢하여 한 때는 急進派의 先鋒인 鄭道伝 등이 流配되는 등 大勢가 그대로 決定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李芳遠이 進歩派의 巨頭인 鄭夢周를 殺害하자 情勢는 急轉하여 急進派가 政權을 掌握하게 되었다.

急進派가 政權을 잡자 가장 먼저 着手한 것은 土地改革이었으니 이들은 權門勢家の 大土地(農莊)를 沒收하여 再分配하였다. 이로써 既往의 特權層은 政權에서 追放되고 그 經濟的 基盤마저 剝奪당하였고, 反面에 政權을 차지한 急進派는 富마저 차지하였다. 土地改革으로 가장 惠沢을 받은 것은 물론 新儒學者들 自身이었지만 한편 國家財政도 破綻을 免하게 되었고 一般百姓도 公田의 收租率이 私田의 收租率보다 낮은 만큼 惠沢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急進派의 土地改革은 두가지 障壁에 부딪치게 되었으니, 王室所有의

農莊과 佛敎寺院의 農莊에는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障壁을 무너뜨리고 全面的인 土地改革을 한다는 것은 高麗王朝 自體의 崩壞를 意味하였다. 結局 急進派는 高麗王朝를 滅亡시키고 朝鮮王朝를 樹立하였다. 王朝交替後에 土地改革은 더욱 擴大되어 드디어는 佛敎寺院의 經濟的 基盤을 무너뜨렸다. 이런 意味에서 王朝交替는 新儒學派가 推進해 온 改革, 즉 旧體制에 對한 全面的 改革運動의 論理的 歸結이었다.

### 3

이와 같이 新儒學派의 改革運動은 易姓革命을 가져왔다. 그러나 急進派의 改革運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政治秩序를 이룩하려는 努力은 不斷히 繼續되었다. 그러한 努力은 많은 試鍊을 겪기도 하였다. 最初의 시련은 權力構造에 관한 意見의 對立이었는데, 先王之制와 時王之制라는 두 相反된 견해 사이에 磨擦이 있었다. 先王之制란 堯舜 때의 理想化된 政治體制로서, 王은 權威와 正統性의 象徴으로 君臨하고, 政治의 實際는 首相을 頂點으로 하는 官僚가 成文法과 慣例에 따라서 處理하는 制度였다. 이것은 一種의 立憲君主制로서 王의 役割은 오늘날 日本 天皇이나 英國 女王의 役割과 비슷했다. 鄭道伝이 朝鮮經國典에서 披擲한 새 政治秩序의 靑寫眞은 바로 이러한 權力構造였다. 한편 時王之制란 當時 中國의 政治體制로서 專制王權을 土臺로 皇帝가 政治의 實務를 直接 處決하는 方式을 의미했다. 이것은 곧 太宗과 그의 支持勢力이 理想

으로 삼는 制度였다. 麻生武龜는 兩派를 각각 成憲黨과 王權黨이라고 불렀는데 매우 적절한 指稱이다.

이러한 政治路線의 대립은 自派의 利害關係와 直結되어 權力鬭爭으로 나타났다. 새 王朝가 出帆한 직후에는 鄭道伝 一派가 實權을 잡고 가장 나이 어린 王子를 世子로 삼아 巴야흐로 先王之制가 確立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1398년에 李芳遠이 政變을 일으켜 鄭道伝 一黨을 除去하자 大勢는 一變하였다. 특히 1400년에 太宗(即 芳遠)이 即位한 후 六曹直啓制등 時王之制에 가까운 政治體制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王이 바뀔 때마다 王의 年齡이나 能力에 따라 王權이 增減하고 이에 따라 權力構造도 바뀌었다. 예컨대 端宗과 같이 나이 어린 王이 即位하면 王權이 弱化되었다가 世祖의 篡奪로 王權은 다시 強化되었다. 즉 權力의 函數關係는 王權이라는 變數에 따라 계속 바뀌었으며, 成憲黨과 王權黨의 浮沈은 계속되었다.

權力構造의 變化와는 關係없이, 儒敎의 理想政治를 實現하려는 努力은 不斷히 계속되었다. 즉 政治의 儒敎化가 계속되어 새로운 政治風土가 確立되었다. 이것은 朝鮮時代의 支配層 全體가 新儒學의 影響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이다. 太宗이나 世祖같이 王權強化에 注力한 君主도 儒敎의 理想政治를 實現하려는 努力은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儉素한 생활을 하고 政事에 부지런하고 百姓의 生活安定에 腐心하였다. 또 王을 儒敎의 理想君主로 만들기 위한 制度的 裝置도 確立되었으니 經筵이 바로 그것이었다. 經筵은 임금에게 每

日 儒敎經典과 政治史를 講義하여 王으로 하여금 政治의 原理와 實例를 공부하여 이를 본받게 하려는 제도였다. 世宗은 即位後 거의 20年 동안 每日 經筵講義에 參席했고, 成宗은 在位 25年間 하루에 세 번씩 베풀고(朝·晝·夕講) 政治의 原理를 공부하고 現在의 政治를 反省했다. 經筵은 새로운 政治風土의 한 斷面이었으며, 政治의 儒敎化를 促進하는 中樞이기도 하였다.

새로운 政治風土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天災地變에 대한 態度였다. 天災地變이란 天地의 調和와 秩序에 생긴 異變을 말하는데, 旱魃·洪水·日蝕·月蝕·星·地震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였다. 儒敎의 政治理論에 의하면, 災異는 政治가 잘못되어 생기는 것으로 그 責任은 오로지 王에게 있었다. 따라서 災變이 생기면 王은 자기의 失政에 대한 責任을 痛感하여 飲食을 줄이고 正殿을 避하여 狹少한 곳에서 起居하고, 자기의 失政에 대한 批判을 널리 求하였다. 朝鮮初에는 高麗時代의 遺風이 있어 僧侶·무당·方士등을 시켜 祈雨祭나 解怪祭를 지내기도 했으나, 이런 것도 차차 없애고 宗廟에서의 祭祀만 奉行했다. 그 만큼 王의 責任이 커진 것이었다. 朝鮮時代의 天災異論에 관하여 한가지 特記할 것은 日月蝕에 대한 見解다. 당시 儒學者들은 日月蝕이 天體의 運行에 따라 週期的으로 發生함을 알았고 그 時刻까지 미리 算出하면서도, 日月蝕이 王의 失政 때문이라는 強辯을 계속했고, 王도 이를 받아들여 救蝕의 節次를 밟았던 점이다.

이와 같이 朝鮮의 政治風土는 確實히 高麗의 政治風土와 달랐다.



이것은 儒敎政治思想이 徹底히 侵透하여 政治의 方式에 至大한 影響을 미쳤기 때문이다. 高麗時代에도 儒敎의 理想政治를 물랐던 것은 아니나 支配層 가운데 儒敎理念에 透徹한 사람이 거의 없어 儒敎的인 政治風土의 基盤이 弱했다. 그런 意味에서 新儒學者들의 登場은 그 歷史的 意義가 컸다. 이들의 革命運動은 易姓革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儒敎的인 政治風土의 確立에서 더욱 重大한 使命을 遂行한 것이었다. 이러한 政治의 儒敎化는 보다 根本的인 變化, 즉 韓國人의 生活全般이 儒敎化한 結果였다.

4

新儒學者들이 새 王朝를 樹立하자 崇儒抑佛政策을 推進해 간 것은 當然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徹底的 異端排擊이야말로 新儒學精神의 特徵이었기 때문이다. 新儒學者들은 鮮初부터 組織的이고 持統的인 儒敎化 運動을 展開했고 이 運動은 刮目할 만한 成果를 거두었다. 그 結果 儒敎는 韓國人, 특히 支配層의 生活에 깊이 侵透하여 韓國人의 思考方式과 行動樣式에 커다란 變化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約 千年에 걸치는 韓國史의 佛敎時代가 끝나고 約 五百年에 걸치는 儒敎時代가 始作된다. 여기서는 新儒學者들이 展開한 文化革命運動의 斷面과 그 結果를 간략히 살펴보자.

儒敎化運動의 一面은 科擧制度의 改革을 통한 儒學敎育의 強化에서 볼 수 있다. 高麗時代에는 科擧(兩大業) 合格者의 94% 정도가 製述業으로 進出했고 明經科를 통해 진출한 사람은 全體 合

格者의 6% 정도에 不過했다. 즉 詩賦에만 能하면 충분했고 儒教經典에 대한 知識은 必須的이 아니었다. 새 王朝를 세운 新儒學者들은 이를 根本적으로 바꾸어 經學을 必須化했다. 우선 小科에는 生員試와 進士試가 있었으나 朝鮮初期 60年 동안은 經學을 試驗하는 生員試만 實施하고 詩賦를 試驗하는 進士試는 아예 實施하지도 않았다. 大科(文科)에는 初場-經學, 中場-文學, 終場-史學의 三場이 모두 必須科目인데다 科目落第가 있었으므로 經學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應試願書를 接受할 때는 照訖講을 實施했는데, 朱子家禮를 口頭試驗하여 여기에 通過해야만 科擧에 應試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科擧制度의 改革은 儒教教育의 普及에 至大한 影響을 미쳤다.

儒教化 運動의 다른 側面은 家禮의 法典化였다. 즉 葬喪과 結婚등에 관한 儒教의 家族倫理를 強制法規로 만들어 士大夫부터 이를 實踐토록 한 것이다. 葬喪制度에 있어서는 葬禮를 家禮에 따라 舉行하고 父母의 三年喪을 지키며 집집마다 家廟를 세우고 神主로 모셔 祭祀지내게 하였다. 服喪中에는 官職에서 물러나야 하며 科擧도 볼 수 없으며 結婚도 하지 말아야 하며 性生活도 禁忌였다. 이러한 規範은 日常生活에 미치는 影響이 컸으니, 假令 祖父母와 父母가 차례로 別世할 경우 그 当事者는 심각한 困境에 빠지게 되었다. 또 儒教式 婚姻規範이 實施됨에 따라 近親婚·重婚·離婚·再嫁등이 原則적으로 禁止되어 이를 違反하는 경우에는 本人 또는 그 子孫에게 法的인 制裁를 加하였다. 예컨대 同姓同本

婚의 경우에는 婚姻을 無効化시키고 男女를 각각 遠地에 流配하고 그 所生은 公賤을 삼았다. 이것은 新羅時代 骨品制度가 徹底한 近親婚에 立脚했고, 高麗의 王室이 역시 近親婚을 많이 했던 것과는 좋은 對照를 이룬다. 結婚方式의 變化는 嫡庶의 區別이라는 새로운 社會問題를 가져왔다. 또 祭祀의 義務化는 祭祀相統을 위한 養子制度를 確立했으며, 長子の 祭祀相統은 財産相統의 方式을 變化시켰다. 이러한 變化는 支配層에서 시작하여 漸次 被支配層으로 擴大되었다.

儒教化 運動의 또 다른 側面은 佛敎에 대한 彈壓이었다. 新儒學者들은 우선 寺刹을 大幅 整理하여 그 數를 줄이고, 寺刹 所有의 土地와 奴婢의 大部分을 國家에서 沒收하여 그 經濟的 基盤을 剝奪하였다. 그들은 또 度牒制를 強化하여 僧侶가 되는 資格을 制限하고 僧侶의 數的 增加를 抑制했다. 新儒學者들은 또 佛敎儀式을 國家와 個人의 生活로부터 追放하는데 注力하였다. 宮中에서 行해지던 各種 道場을 廢止하고, 經行과 先王을 위한 忌辰齋같은 儀式을 禁止하고, 婦女子가 절에 가는 것을 禁하였다. 가뭄에 舉行하던 佛敎式 祈雨祭도 많은 批判 끝에 드디어 中宗朝에 이를 廢止하였다. 이와 같이 佛敎寺院의 經濟的 基盤을 剝奪하고 人的 資源의 供給을 制限하고 支配層의 後援을 막은 것은 佛敎界에 決定的인 打擊이었다. 이미 沈滯하던 佛敎界로서는 이러한 打擊을 堪耐하기 힘들었다.

이와 같이 新儒學者들의 儒教化運動은 國家權力을 背景으로 하여

強力하게 推進되었다. 처음에는 그 運動의 基盤이 貧弱하여 國家 權力의 도움이 없이는 推進力이 不足하였다. 佛敎에 대한 儒敎의 勝利도 思想的인 勝利가 아니라 政治的인 勝利였다. 그러나 한 世紀가 지나는 동안에 新儒學者들의 文化革命은 그 低邊이 擴大되어 權力의 介入이 없이도 充分한 推進力을 發揮하게 되었다. 十六世紀로 넘어가면 儒敎의 實踐的인 規範을 徹底하게 遵守함은 물론, 그 理論的인 體系에 대한 理解가 深化되었다. 한편으로는 家禮에 대한 研究書가 나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人性論과 存在論에 대한 研究가 깊어지면서 四端七情論爭등 理氣論에 관한 論爭이 活潑해진다 이때는 支配層 내지 知識層의 思考方式과 行動方式은 徹頭徹尾 儒敎化되어 佛敎의 影響 같은 것은 거의 생각할 여지가 없어졌다. 그리하여 儒敎文化革命은 커다란 成功을 거두었다.

新儒學者들의 革命運動은 短期的으로 보면 易姓革命으로 일단 成功했으며, 長期的으로는 儒敎文化革命을 完遂했다. 그 結果 新儒學者들은 革命의 影響을 永統化시켰다. 특히 그들의 強烈한 改革精神은 그대로 繼承되어 恒常 革新政治의 原動力이 되었다. 儒敎의 行動規範도 모두 우리의 傳統 속에 뿌리를 박아 오늘날도 그 影響이 남아있다. 現行 民法에 規定된 同姓同本不婚은 그 代表的인 例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儒敎文化革命의 內容과 그 遺産에 대한 우리의 知識은 매우 皮相的이고 單片的인 水準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이 分野에 대한 體系的인 研究가 切實히 要望된다.